

④ 出穂 및 収量性으로 본 安全作期는 4月30日以前이 播種限界期로 여겨지고 苗莖日數 50日以上 運長은 不可하다고 본다.

2. 내륙과 연해지역 기상환경 차이가 벼생육과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농촌진흥원) 장순덕

내륙과 연해지역의 기상환경 차이가 벼생육과 수량구성 요소에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신육성 벼품종에 대하여 지역별 이앙적기와 이앙기별 적응품종을 구명하기 위하여 '77년도에 내륙과 연해지역별로 7개 품종을 공시 5월 11일부터 15일 격으로 7월 10일까지 5회 이앙하여 시험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해지역은 내륙에 비하여 벼 재배기간의 평균기온이 전반기는 낮았으나 후반기는 높았으며 기온교차가 적었고, 일조시수가 적었으며 강우량이 많았고, 풍속이 크고 담면수온이 낮았다.

2) 벼출수는 늦으며 출수일수는 길어졌고 출수기간의 적산온도가 적은편이며 일평균 기온도 낮았다.

3) 출수기간 일평균 기온 1℃ 상승에 따른 출수 촉진 정도는 약하였다.

4) 연해지역은 내륙에 비하여 유효경 비율은 높은 경향이나 주당수수, 등숙비율, 천립중은 저조한 편이고 수당입수는 많았다.

5) 평균 수량은 내륙 (574 kg / 10a) 에 비하여 15% (86 kg)

적었다.

6) 내륙에서는 6월 10일 이양까지는 내경이 유리하나 그 이후는 밀양 21호가 수량이 높으며 연해지역에서는 5월 26일까지는 내경, 6월 10일경에는 밀양 21호, 6월 25일은 밀양 15호, 7월 10일 극만식은 조생통일이 유리하였다.

7) 이양기에 따른 수량의 변이계수는 연해지역이 내륙보다 커서 만식에 의한 수량 감소정도가 높은 편이다.

10. 춘천지방에 있어서 통일계 벼의 안전작기 구명에 관한 연구 (강원도 농촌진흥원) 오용비

“통일”계 벼의 재배에 있어서 춘천지방의 기상환경과 출수일수 및 수량과의 관계를 밝혀 안전 다수할 수 있는 작기를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

1) 이양기가 지연됨에 따라 출수기도 지연되었는데 조만간의 출수 지연폭은 만생종이 더 컸다.

2) 출수 일수간의 1일 평균기온과 출수일수와는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로서, 1C 높아짐에 따라 양품종 공히 5일씩 단축되었으며 퇴귀 직선식을 구하므로써 임의의 이양기에 있어서 출수기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등숙기간 1일 평균기온과 등숙율 및 수량과의 관계는